This is First Self Book

밤의 그림책(책 제목을 적어주세요)

발행 2020-07-04

지은이 authTest(저자명, 필명을 적어주세요)

발행인 심영길

발행처 북팟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106호

전화 080-865-3700

전자우편 webmaster@bookpod.co.kr

홈페이지 www.bookpod.co.kr

ISBN 979-11-00-0000-0

ⓒ 저자명, 2019

\* 이 책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북팟은 (주)아이커머의 출판전문브랜드입니다.

밤의 그림책

워킹맘이 쓴 그림책 에세이

저자명 지음



**차례**

프롤로그 5

1부\_ 나를 위한 그림책

어둠이 오면 잘 보이는 것들\_<집으로 가는 길> 6

엄마가 되기 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_<우리 엄마> 12

별 거 아닌 일상의 힘\_<상추씨> 17

사랑의 힘을 보여 줘\_<고마워 사랑해> 19

워킹맘, 당신은 혼자가 아니랍니다\_<균형> 20

마일즈처럼 살고파\_<마일즈의 씽씽 자동차> 24

2부\_ 우리를 위한 그림책

작은 투쟁\_<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30

바보처럼 살자고요\_<비에도 지지 않고> 33

함께 더위를 나누는 세상이 되기를\_<수박수영장> 37

3부\_ 우리를 위한 그림책

작은 투쟁\_<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30

바보처럼 살자고요\_<비에도 지지 않고> 33

함께 더위를 나누는 세상이 되기를\_<수박수영장> 37

에필로그 55

나를 위한 그림책

1부

|  |
| --- |
| Q:태어난 곳은 어디인가요?  A:skipped |
| Q:살던 고향을 소개해주세요  A:skipped |
| Q:고향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 향수가 떠오르나요?  A:skipped |
| Q:이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A:skipped |
| Q:어렸을 적, 별명이 있으셨나요?  A:skipped |
| Q:왜 생긴 별명인가요?  A:skipped |
| Q:마음에 드셨나요?  A:skipped |
| Q:현재 살고있는 동네를 소개해주세요. 친한 동네친구가 있으신가요?  A:skipped |
| Q: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skipped |
| Q: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 Q:일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직장, 가사일 등)  A: |
| Q:신입사원(신입주부 등)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A: |
| Q:오늘 할머니(할아버지)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A:skipped |
| Q:보통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몇시에 일어나서 몇시에 주무시고, 어떤 활동을 하세요?  A: |
| Q:본인은 어떤 성격이신가요? (조용조용한, 활발한, 대범한, 리더십 있는 등)  A:skipped |
| Q:가장 감명깊게 읽은 책(본 영화)가 있으신가요?  A:skipped |
| Q:좋아하는 운동이 있으셨나요? 어릴 적 하던 운동과 현재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A:skipped |
| Q: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A: |
| Q: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감과 개인적 만족을 준 사람(계기)가 무엇인가요?  A: |
| Q: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누구와 함께였나요?  A: |
| Q: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 Q:가장 친했던 친구는 누구였나요?  A:skipped |
| Q: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나요?  A:skipped |
| Q:어릴 적, 유행하던 놀이가 있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게임을 같이 해요)  A:skipped |
| Q:처음으로 좋아했던 이성 친구(첫사랑)에 대해 알려주세요. 없다면 기억에 남는 이성 친구가 있나요?  A:skipped |
| Q:어릴 적,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으셨나요? (먹기, 노래 부르기 등)  A:skipped |
| Q:주변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나요? (성적, 집안일 등) 누가 가장 큰 기대를 하였나요?  A:skipped |
| Q: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A:skipped |
| Q:부모님을 소개해주세요. (외모, 성격, 가치관 등)  A: |
| Q:어렸을 적,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A: |
| Q:형제가 있으신가요?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 등)  A: |
| Q:할머니(할아버지)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언제, 어디서 등)  A: |
| Q:할머니(할아버지)와 결혼을 결심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상대방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skipped |
| Q:연애와 결혼생활 중 할머니(할아버지)께 드린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인가요?  A: |
| Q:할머니(할아버지)와 가장 크게 다툰 적이 언제인가요? 어떤 계기로 다투셨나요?  A: |
| Q:처음 자식을 품에 안겼을 때 기억하시나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A: |
| Q:딸(아들)과 함께한 추억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A:skipped |
| Q:자식(혹은 손주)가 결혼하면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A: |
| Q: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부끄러운) 순간이 있나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A: |
| Q:살아오면서 억울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생각만 하더라도 울컥한 순간 등)  A: |
| Q:돈, 가족, 시간 등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A:skipped |
| Q: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직업, 성격, 인종 등)  A:answerdasdasdasdasd |
| Q:최근에 무슨 생각(활동)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쓰시나요? (자식 걱정, TV 시청 등)  A: |
| Q:가장 보고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A: |
| Q:사고싶은 물품(가구, 옷, 식품 등)이 있으신가요? 무엇인가요?  A: |
|  |

**어둠이 오면 잘 보이는 것들**

[**집으로 가는 길**](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11253957)

작가 미야코시 아키코, 비룡소

아이가 태어나고, 일을 시작하면서 밤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회사는 나의 밤을 야금야금 빼앗아서 갔고, 아이는 나의 품을 한없이 찾았다. 작년만 해도 자는 시간 뺀 나머지 시간을 회사 일과 육아로 보냈던 나는 결국 지난 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주 작은 회사로 옮겼다. 그곳은 다행히 업무량이 적은 편이었다. 덕분에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오롯이 홀로 보내는 밤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살짝 들떴다. 추위도 잊은 채 들뜬 마음으로 퇴근 버스를 기다렸다.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하루 중 편안하게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자, 유일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꼽아보기도 하고, 어떤 책으로 어떤 글을 쓸지 생각도 하고. 소식이 뜸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기도 했다. 때론 혼자 울쩍거리며 터벅터벅. 아주 느리게 걸어가기도 했다. 낮 동안 꽉 다물고 있던 입이 시원스레 열리며 혼잣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아무래도 어둠이 오면, 긴장이 풀어지고, 몸과 마음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때, 딱 읽기 좋은 책이 있다. 바로 미​야코시 아키코의 <집으로 가는 길>이다. 어둠이 내려앉은 한적한 골목길에 아기 토끼는 엄마 토끼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간다. ​품안에서 한껏 나른해진 아기 토끼가 바라본 밤의 첫 풍경은 가게가 문을 닫는 것부터 시작한다. 마치 의식의 세계가 문을 닫는 것처럼. 아기 토끼가 오감으로 좇은 밤은 질감 있는 흑색의 그림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은 우리의 의식을 깨우지 않을 정도로 은은하다. 작가는 그림 속 의인화된 동물들의 표정을 그들이 어떤 기분 상태인지 쉽게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게 그려놓았다.

게다가 목탄을 뭉개고 문질러 표현한 까만 밤은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다. 덧칠해도 감출 수 없는 종이의 결은 미끈하고 끈적한 밤이 아니라 따뜻한 밤을 연출한다. 그렇게 표현된 밤은 장마다 새로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사연으로 다양한 결을 드러낸다. 파티하는 사람들, 불을 끄고 깊은 상념에 잠긴 사람, 욕조에 몸을 푹 담그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 책을 읽다 소파에 잠든 사람, 그리고 마지막엔, 집인지, 어디인지 목적지는 알 수 없으나 어딘가로 멀리 떠나는 사람까지. 어둠은 점점 뻗어 나가 이곳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까지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한다.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변명했다간 여기선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 어둠은 빛 같다. 내 이웃의 사연과 감정까지도 세세하게 전달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이 책을 볼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지만, 아기 토끼가 엄마 토끼 품에 안겨 침대에 잠이 드는 과정은 우리의 탄생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엄마 품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 토끼의 모습은 꼭 뱃속 아기 같다. 하는 짓도 꼭 태아다.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열달을 지내다가 미성숙한 상태로 세상 밖으로 나온다.